

方豪와 『中西交通史』*

- 그 사학사적 의미와 한계 -

손준식**

목차

- I. 머리말
- II. 방호의 생애와 업적
- III. 『중서교통사』의 구성과 자료
- IV. 『중서교통사』의 특징과 한계
- V. 맺음말

I. 머리말

21세기 학술발전 추세의 하나는 전공학문의 장벽과 폐쇄성을 넘어 학제 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통한 ‘통섭’(consilience)형 종합학문을 지향하는 데 있다. 역사학의 입장에서 이 이러한 현대 지식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교차와 횡단의 인문학’의 일환이 되기 위해 ‘종합’은 더 이상 유예될 과제가 아니다. 근대 이후 역사학의 한 분과로 등장한 동서교류사는 동서양의古今 역사를 관통할 뿐 아니라 외교사, 국제관계사, 정치사, 경제사, 문화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사, 사상사, 문학사, 예술사, 과학기술사, 민속사, 종교사 등 여러 전문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역사학 본연의 ‘종합’이란 이상과 현 세계화시대의 ‘통섭형’ 학문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주제이다.

방호가 쓴 『중서교통사』는 바로 이러한 ‘종합’과 ‘통섭’의 대표적 저작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계의 명저로 널리 알려져 왔다.¹⁾ 방호는 현대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중서교류사 외에도 송사, 대만사, 홍루몽 연구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특히 사제의 신분으로 천주교의 동방 전래와 서양선교사의 활동 및 그 영향 등에 대한 사료발굴과 고증연구에 있어서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는 조선사절과 교류한 서양선교사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아 조선시대 서학과 서양문물 수용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²⁾ 그럼에도 방호 개인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 대만에서도 그리 높지 않았으니,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호의 臺灣大學 제자인 李東華가 은사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한 글과 책³⁾ 및 그의 연구와 활동이 중국역사학과와 홍콩학계에 미친 영향을 다룬 논문⁴⁾ 외에, 修彩波가 방호의 연구업적과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검

-
- 1) 본서는 국내에서도 그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명저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말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 2) 이 점에 주목하여 『中國天主教史人物傳』을 소개한 신익철의 「중서교류사 탐구의 성과와 연행록 연구의 집짐」(『정신문화연구』34-4, 2011)이 방호와 관련한 국내 유일의 글이다. 그 밖에 『중서교통사』에서 한국이 거론된 경우는 ①간다라 미술, 「九執曆」, 폴로(Polo), 망원경 등의 전래; ②최치원의 『法藏和尚傳』, 「고려대장경」, 慧超, 玄遊 등 불교 인물; ③아랍인의 기록에 등장하는 신라의 존재; ④고려와의 무역과 사행 및 선박; ⑤고려 출신 여자 하인; ⑥고려에서 생산된 종이; ⑦임진왜란 당시의 총포 사용; ⑧마테오 리치의 『萬國全圖』와 「皇輿全覽圖」 중의 조선지도 등이 있다.
 - 3) 李東華, 「方杰人(豪)先生年譜稿」(이하 「연보고」로 약칭), 『國立臺灣大學文史哲學報』34, 1985; 李東華, 『方豪先生年譜』, 臺北, 國史館, 1990; 李東華, 「一位自學史家的成長: 方豪的生平與治學」,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17.
 - 4) 李東華, 「方豪與現代中國史學研究的轉變」(이하 「전변」으로 약칭), 『臺大歷史學報』21,

토한 글이 있다.⁵⁾ 그리고 방호가 역사에 흥미를 갖고 독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과 영향을 받았던 선배 학자 陳垣과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역사학자로 성장해 간 역정을 살펴본 關玲玲의 논문이 있다.⁶⁾ 다음으로는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사와 관련된 방호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평가한 3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이 있으며⁷⁾, 대만사⁸⁾와 홍루몽 연구⁹⁾에 있어서 거둔 성과 및 최초의 유명한 화가이며 천주교 신부였던 吳歷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¹⁰⁾ 그밖에 천주교 신자이며 복단대학 설립자인 馬相伯과 방호의 사상과 행적을 비교 연구한 석사논문이 있다.¹¹⁾

한편 본고의 주제인 방호의 『중서교통사』에 관한 연구는 높은 평가¹²⁾

1997(이 논문은 1996년 제16회 한국중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 다음해 『중국학보』37집에도 수록되었다); 李東華, 「方豪教授與香港學界的交往及其影響(1950- 80)」, 『臺大文史哲學報』62, 2005.

- 5) 修彩波, 「方豪史學成就述評」, 『歷史教學問題』2002-6.
- 6) 關玲玲, 「方豪與陳垣之私淑情誼: 一位自學史家成長的關鍵歷程」, 『東吳歷史學報』19, 2008.
- 7) 修彩波, 「試論方豪的宗教史研究」, 『貴州文史叢刊』2003-1; 修彩波, 「方豪的天主教史研究: 以『中國天主教史人物傳』爲例」, 『萊陽農學院學報』2003-1; 李東華, 「方豪神父與民國天主教會」, 『臺大歷史學報』33, 2004; 修彩波, 「讀方豪的『中國天主教史人物傳』」, 『華夏文化』2003-3.
- 8) 盧胡彬, 「方豪對臺灣方志的研究」, 『白沙人文社會學報』1, 2002; 隋丕寧, 「論方豪對臺灣史的研究」, 『錦州師範學院學報』2003-7; 洪健榮, 「開啓‘典範’的先驅: 方豪對清代臺灣方志的研究」, 『輔仁歷史學報』26, 2011; 李天星, 「試論戰後方豪的臺灣史研究」, 『臺灣研究集刊』2017-1.
- 9) 張曉磊, 「方豪紅學研究」, 中國藝術研究院 碩士論文, 2010; 張曉磊, 「方豪紅學研究綜述」, 『紅樓夢學刊』2010-2.
- 10) 章文欽, 「方豪教授與吳漁山研究」, 『輔仁歷史學報』28, 2012.
- 11) 柯思慧, 「從馬相伯到方豪: 中國知識分子天主教士的思想衝激與教育·傳教事業」, 中國文化大學 碩士論文, 2010.
- 12) 예컨대 “규모가 크고 내용이 풍부하며 자료가 광범하고 고증이 엄밀한 중외관계사의巨著이자 고대부터 청대 중엽까지의 중외관계사를 전면 탐구한力作”(彭顯生, 「中外關係史的一部力作: 評方豪的『中西交通史』」, 『湘潭師範學院學報』1996-5, 82쪽), “지금까지 나온 가장 완벽한 중서교통사 通史 저작”, “중서교통사 연구의 필수참고 도서이자 중서교통사

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그 중 彭順生의 논문¹³⁾은 겨우 3쪽에 불과하고, 修彩波의 논문 1편은 그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미리 요약 발표한 것으로 『중서교통사』 뿐 아니라 방호의 다른 관련 논저를 동시에 검토한 글이다.¹⁴⁾ 그 외 修彩波의 박사논문은 방호 이전 중서교통사 연구에 족적을 남긴 대표적 학자인 陳垣, 張星烺, 馮承鈞, 向達 등과 함께 비교한 것이며¹⁵⁾, 李東華의 논문도 방호의 학술생애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중서교통사 관련 연구성과를 정리한 글일 뿐이다.¹⁶⁾ 이처럼 방호의 『중서교통사』를 단독 주제로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 의거해 방호의 생애와 업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중서교통사』의 출판경위와 내용구성 및 서술방식과 인용자료 등을 직접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본서가 갖는 특징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학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통섭’형 종합학문 특히 접경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

II. 방호의 생애와 업적

방호는 역사학자이자 신부로 자는 杰人이고 필명은 芳廬, 聘老¹⁷⁾, 絶塵 등이 있다. 1910년 절강성 항주에서 청말 혁명운동에 참가했던 方矩(壽彭)

연구를 집대성했다고 부를만한 명저”(修彩波, 「方豪與中西交通史研究」, 『史學理論研究』 2003-3, 141쪽)로 평가받고 있다.

13) 彭順生, 앞의 논문.

14) 修彩波, 「方豪與中西交通史研究」.

15) 修彩波, 「近代學人與中西交通史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4.

16) 李東華, 「從方杰人師的學術生涯看其對中西交通史之研究」(이하 「연구」로 약칭), 『輔仁歷史學報』 26, 2011.

17) 百度를 비롯한 일부 자료(修彩波, 「方豪史學成就述評」 등)에 ‘聖老로 되어있으나 오류이다.

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항주에서 4년 과정의 초등교육을 마치고 가정형편으로 인해¹⁸⁾ 1921년 嘉興의 천주교 備修院¹⁹⁾에 들어가 중국 전통학문과 라틴어 및 종교과목을 배우며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음해 항주 神學院 예비학교에 입학하면서 李之藻의 이름을 처음 듣고 浙江 지역 외래종교사에 흥미를 갖게 되어 여가시간에 천주교 선현의 전기를 읽으며 陳垣에게 편지로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다. 1928년 7월 예비학교를 졸업하고 9월 寧波 성 바오로神哲學院에 진학해 철학과 신학 및 교회역사 등을 탐구하는 한편 불어를 독학으로 깨우쳤다.²⁰⁾

1934년 신철학원을 졸업하고 平湖縣 천주당에서 근무하다 다음해 9월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36년 9월 모교인 항주 신학원 예비학교에 중국어문교사로 임명되었고 1937년 9월에는 金華 본당 신부로 발령받아 金華·永康·武義·湯溪 4縣 경계지역에서 선교를 하였다. 한편 수도원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자 이전부터 연구해왔던 중서교통사 관련 논저를 지속적으로 발표²¹⁾하면서 학계에 이름을 알리게 된다. 1938년 전란(중일전쟁)을 피해 雲南省 昆明에 도착하여 主教 于斌을 도와 『益世報』를 복간하고 부사장 겸 총주필을 맡았다. 1939년 말 『익세보』 본사가 重慶으로 이전하고 각종 週刊을 발행함에 따라 「종교와 문화」 주간 주편을 맡은 방호는 원고모집을 위해 陳寅恪·顧頡剛 등과 같은 대가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1941년 『익세보』 일을 그만두고 8월 貴州省 遵義에 있던 浙江大學 역사지리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중서교통사> 등을 강의하면서 『익세보』 「文史副

18) 집안이 중도에 몰락해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니는 바람에 소학교(국민학교) 4곳을 전전하며 겨우 졸업하였고, 1920년에는 원래 성공회 신자였던 가족이 모두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19) 당시 중국의 천주교 신부 양성 학제는 備修院 1년, 小修道院 5년, 大修道院 6년(철학전공 2년, 신학전공 4년)으로 편제되어있었다.

20) 李東華, 「연보고」, 296-304쪽.

21) 1938년 이전 중서교통사 관련 논저목록은 李東華, 「연구」, 11-12쪽을 참조.

刊』의 주편을 맡았다. 1942년 8월부터는 중경에 있던 復旦大學 역사지리학과 교수로 옮겨 학과장을 맡았고 復旦天主敎同學會를 조직해 학생을 지도하기도 하였다.²²⁾ 이 기간 신문사 일과 대학 강의를 하면서도 저술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으니, 4권의 책(논문집 2권, 연구서 2권)과 1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²³⁾

1946년 봄 상해로 復員한 복단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남경 『中央日報』 주필을 맡아 매주 한번 남경에 가는 편을 이용해 政治大學 신문학과에서 강의하였다. 곧이어 6월 북경총주교의 요청으로 북경에 가서 上智編譯館²⁴⁾ 관장 직에 취임하고 사립 天津工商學院(1947년 7월 津沽大學으로 개명)의 초빙에 응해 文學院 원장(학장)을 맡게 되었다. 또 8월부터는 輔仁大學 겸임교수가 되어 <중서교통사> 과목을 강의하였다. 1948년 상지편역관 관장 임기를 마치고 복단대학으로 돌아왔지만 좌파 성향이 강한 이 대학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마침 북경대학 총장 胡適의 권유로 대만대학으로 옮기게 되었다.²⁵⁾ 이 3년간의 북경 체류기간 관장²⁶⁾과 학장의 직무 등을 수행하면서도 여러 편의 논문과 본인의 글 39편을 묶은 논문집(『方豪文錄』) 1권을 펴내는 외에 평소 존경하던 馬相伯 선생의 문집 3책을 편집하였다.²⁷⁾

22) 李東華, 「연보고」, 304-315쪽.

23) 1939-1945년 중서교통사 관련 논저목록은 李東華, 「연구」, 21-22쪽을 참조.

24) 상지편역관은 중국인 최초의 추기경 田耕莘이 북경총주교 재직 시 추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중국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1946년 9월부터 『上智編譯館館刊』을 발행하여 천주교 내부의 외국어 자료 編譯을 비롯한 관련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는데, 방호가 그 중책을 맡았다.

25) 李東華, 「연보고」, 315-319쪽.

26) 관장 재직기간(1946년 9월-1948년 7월) 중 적은 인원(최초 8인)에도 불구하고 총 20종의 책을 출판하였고 편역은 완료했으나 출판되지 못한 책이 4종이 있었다고 한다(李東華, 「연구」, 23쪽).

27) 1945-1948년 중서교통사 관련 논저목록은 李東華, 「연구」, 25쪽을 참조.

1949년 2월 대만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방호는 <중서교통사>·<중일관계사>·<宋史>·<중국외교사>·<중국정치제도사>·<宋代學術史專題研究>·<臺灣史專題研究> 등의 과목을 강의하며 많은 학생의 논문지도를 하였다. 동시에 미사 집전과 성당 신축 외, 대학 내 천주교 신자 교수와 학생모임을 결성하여 敎理座談會를 여는 등 선교활동도 왕성하게 펼쳤다.²⁸⁾ 한편 대만을 제2의 고향으로 간주한 그는 연구방향을 대만사로 돌려²⁹⁾ 자료수집과 연구를 병행하여 대만에 온 첫해부터 바로 관련 논문을 연속 발표³⁰⁾하는 저력을 보였다. 1952년 교황 알현을 위한 유럽 출장 중 각지의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는 『중서교통사』 집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1954년 中國歷史學會(1966-1970년 이사장을 연임), 1958년 宋史研究會(1963년 宋史座談會로 개명), 1965년 臺灣研究研討會, 1966년 中華史學協會(1969년 회장이 됨) 창립과 天主教學術研究所(1968년) 발기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 1957년 이래 유럽과 미국, 홍콩, 호주, 일본, 한국 등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참석하여 발표와 좌장 및 대만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 외 정치대학 文理學院 원장(1969-1975년)으로 초빙되어 역사학과 학과장을 겸임하였고 1974년 중앙연구원 院士로 선출되었다. 1975년에는 천주교회와 학술상의 공적으로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특별히 ‘명예주교’직

28) 그의 선교활동은 대만대학을 넘어 師範學院(현 國立臺灣師範大學), 淡江英語專科學校(현 淡江大學), 省立臺北工業專科學校(현 臺北科技大學), 省立地方行政專科學校(현 國立臺北大學), 東吳大學, 國立政治大學 등 14개 校(院)의 天主教同學會의 지도신부 및 臺北教區大專天主교동학회 총지도신부 등을 맡아 당초 17명이었던 회원을 1026명으로 확대시켰다. 그밖에 『天主教教義問答』(1954), 『主日彌撒經典』(1956), 『徐誠斌主教殘簡』(1977) 등을 편집(역)하여 출판하고 직접 작사 작곡한 『光啓聖歌集』(1958)을 내기도 했다.

29) 대만사로 연구방향을 전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李東華, 「연보고」, 321쪽 각주2에 상세히 나온다.

30) 「康熙五十三年測繪臺灣地圖考」, 『文獻專刊』創刊號(1949.8); 「臺灣方志中的利瑪竇」, 『臺灣文化』5권2기(1949.10).

과 ‘몬시뇰(Monsignor)’ 칭호를 수여받았다.³¹⁾ 1979년 대만대학 퇴임 후에도 대학원에서 <臺灣史料解析>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병상에서 학생의 논문지도와 본인 논문을 완성하기도 했다. 1980년 12월 13일 대북에서 열린 대만연구연토회에 참석했다 만찬 중 쓰러져 치료받다 20일 새벽 향년 71세로 사망하였다.³²⁾ 이처럼 대만 거주 30여 년 동안 천주교계와 학계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군의 활동을 하면서도 사료발굴과 校訂 및 유포를 비롯한 다량의 학술성과를 사망 직전까지 끊임없이 발표하였으니, 그 수가 대략 논문 70편과 저서 8종 이상에 달한다.³³⁾

그렇다면 정규대학을 나오지도 외국유학도 하지 않은 방호가 어떻게 20여 세의 나이에 걸출한 연구성과로 두각을 나타내고 이후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호자는 그 원인/배경을 ①역사에 대한 특별한 흥미, ②항주 일대의 농후한 역사연구 전통(浙東學派)의 훈도와 배양, ③중화민국 초기 새로운 역사연구 풍조(史料學派)의 영향과 탐구로 정리하고 있다.³⁴⁾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외국어 능력 및 시대적 환경이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방호는 짧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서양식 수도원 교육을 받으며 역사에 대한 흥미를 억눌러야 했지만, 과외시간에 천주교 선현의 전기들을 읽으며 명말 이래 서양선교사들의 과학적 학문방법을,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集刊』 등 관련 학술지에 실린 문장을 통해 역사 글쓰기 방법을 홀로 익혀나갔으며, 더욱이 수도원의 엄격한 금령을 무릅쓰고 당대의 대학자

31) 修彩波, 「方豪史學成就述評」, 11쪽.

32) 李東華, 「연보고」, 319-363쪽.

33) 1949-1980년 중서교통사 관련 논저목록은 李東華, 「연구」, 31-36쪽을 참조. 방호의 전체 저작목록은 李東華, 「一位自學史家的成長: 方豪的生平與治學」의 제11장에 <학술지/논문집에 수록된 글>, <단행본>, <신문/잡지에 실린 글>, <서문/발문>으로 나뉘어 자세히 정리되어있다.

34) 李東華, 「전변」, 261-264.

진원에게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청하는³⁵⁾ 등의 고된 학습과정을 거쳐 점차 역사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묻고 배우는 자세와 노력이 평생 지속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두터운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되었던 것이다.³⁶⁾

한편 자료와 주제를 찾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자평한³⁷⁾ 방호는 동시대 다른 학자들이 갖지 못한 라틴어와 불어 등 외국어 실력³⁸⁾을 기초로 기존 중국천주교사와 중서교통사 연구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할 수가 있었다.³⁹⁾ 그밖에 학력과 학벌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으로 인재를 발탁한 당시 학술계의 풍토도 그가 학자로 대성하는 데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된다. 보인대학 총장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일개 수도원 학생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 격려하고 지도해준 진원은 물론, 대학교원 자격심사에서 방호를 적극 추천한 복단대학과 학위도 없는 그를 부교수(1945년)로 인정해준 교육부 당국의 조치⁴⁰⁾, 주저 없이 방호를 초빙한 대만대학 총장 傅斯年⁴¹⁾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35)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關玲玲, 앞의 논문을 참조.

36) 예컨대 천주교 내부에서는 徐潤農, P. Henri Bernard, G. Allegia 신부 등, 외부로는 고향 사람인 張其昀·陳訓慈 등, 곤명과 중경에 있을 때는 진인각·고힐강 외에도 毛子水·白壽彝·姚從吾·向達·張陰麟 등과 끊임없이 학문교류를 나누었다(李東華, 「전변」, 264쪽).

37) 李東華, 「연구」, 37쪽.

38) 방호의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가 독학으로 배운 불어와 영어로 미사를 진행했었다는(李東華, 「연보고」, 335, 350쪽) 점에서 신학원에서 정식으로 배운 라틴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9) 당시 중서교통사 연구의 대가 중 一代宗師인 진원 외에 張星烺은 사료수집, 향달은 중세시기 연구에 국한되어있었고, 馮承鈞은 南海지역, 章鴻釗는 금석문의 번역과 고증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비해 방호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기초로 대륙에 남은 진원과 향달과 달리 대만에 와서 연구를 지속하여 『중서교통사』라는巨著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李東華, 「전변」, 270쪽).

40) 李東華, 「연구」, 13-14쪽.

41) 李東華, 「연보고」, 319쪽.

것이다.

방호가 학문을 시작한 이래 견지한 2가지 기초는 전문주제연구(專題研究)와 자신이 처한 여건에 적합한 연구(近身之學)이다. 전자는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불리 통사 저술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⁴²⁾ 사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고증과 해석에 치중한 그의 학문적 배경 및 연구방법과 관련이 있었다. 후자는 항주 출신으로 수도원에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환경을 활용한 천주교 전교사와 절강향토사(송사 포함)에서 출발하여 중서교통사로 확대시키고, 피란기간 머물렀던 지역 관련 연구성과를 내고, 대만에 온 이후 대만사의 자료발굴과 교정 및 연구에 매진한 그의 학문생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³⁾

방호의 주요 학문적 업적은 다음 몇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중국천주교사 방면의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中國天主教史人物傳』(3冊, 香港, 公教眞理學會, 1970, 1973)을 들 수 있다. 상책에는 唐·元대의 景敎 인물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비롯한 초기 중국선교에 관여했던 인물 등 79명의 전기와 실려 있고, 중책에는 명말청초에 활약한 서양인 선교사와 중국인 신부 및 신자 72명의 행적, 하책에는 19세기 이후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구에 유학해 신부가 된 중국인 등 154명의 행적이 소개되어있다.⁴⁴⁾ 그 외 관련 글을 모은 『中國天主教史論叢』甲集(重慶, 商務印書館, 1944)이 있으며, 초기 저작인 『李我存研究』(杭州, 我存雜誌社, 1937)⁴⁵⁾와 『徐光啓』(重慶, 勝利出版社, 1944)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중서교통사 방면에는 『중서교통사』외 『中外文化交通史論叢』第一輯(重慶, 獨立出版社,

42) 그럼에도 국민정부의 대만 이전 초기 대학교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서교통사』와 『송사』 및 『중국근대외교사』 등 通論性 저작을 내기도 했다.

43) 李東華, 「전변」, 264-267쪽.

44) 더 상세한 내용은 신익철, 앞의 논문, 246-252쪽을 참조.

45) 이 책은 1966년 『李之藻研究』로 서명을 바뀐 臺灣商務印書館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1944)과 수많은 글이 있으며, 특히 만년에 수행한 16·17세기 필리핀 화교 사회에 관한 논문들은 그의 중서교통사 연구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③송사方面에는 『宋史(上·下)』(대북,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4) 외에도 많은 논문이 있는데, 그 중 송대 사회 문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 ④대만사方面에는 사료발굴과 校刊 및 考證에 불후의 업적(원로 대만사학자 楊雲萍의 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척’⁴⁶⁾에 대한 논문은 대만사 연구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의 사후 출판된 『臺灣早期史綱』(대북, 學生書局, 1994)은 만년에 계획했던 대만통사의 일부분인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대만 점령 이전 시기를 다룬 책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사료발굴과 치밀한 고증을 통해 획기적 연구업적을 남긴 그를 중국 사료학과의 마지막 1인으로 부르기도 한다.⁴⁷⁾

Ⅲ. 『중서교통사』의 구성과 자료

앞서 본대로 방호는 절강지역의 천주교사 연구에서 출발하여 점차 중서교통사로 관심을 확대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대학에서 <중서교통사> 강의를 오래 진행하였다. 대만으로 건너온 후 대학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여 총 70여 만자에 달하는 『중서교통사』를 집필하였으니, 그 중 1, 2권은 1953년 1월, 3권은 같은 해 11월, 4, 5권은 1954년 5월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에서 차

46) 清代 대만 각지에 널리 분포해있던 商業公會 조직으로 그 구성원 대부분은 船商과 항구에 있는 商號였다.

47) 그의 공헌 중에는 많은 송대사 전공 제자를 배출한 것도 포함된다. 李東華, 「전변」, 269-272 쪽 참조.

례로 출간되었다.⁴⁸⁾ 이후 1983년 대만 中國文化大學出版部에서 그 1, 2권을 상권, 3, 4, 5권을 하권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였고, 이를 1987년 대륙의 岳麓書社에서 책 앞에 2쪽의 짧은 출판설명만 덧붙여 그대로 重印한 것이 있다.⁴⁹⁾

1. 체제와 내용

본서는 상권에 「導言」과 1, 2편이, 하권에 3, 4편이 묶여있다. 「도언」에서는 중서교통사의 용어 정의와 내용⁵⁰⁾에 대해 간략히 안내한 다음, 관련 선행연구를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①중국학자의 서북지역 역사·지리 연구에서는 중서교통사 연구의 발흥 배경으로 청 건륭·가경 이후 서북지역에서 지방관을 지내거나 종군한 사람과 유배된 사람의 저술 및 기타 관련 저작과 학자를 열거하고 있다. ②중국학자의 국외 지리 연구에서는 그 발단이 된 청대의 元史 연구성과 외에 아편전쟁 이후 외국을 시찰(사절)·여행하거나 조사한 사람의 기록과 저작 및 서양사정과 대외교섭통상에 관해 정리한 논저를 들고 있다. ③구미학자의 중국 연구에서는 명말청초 서양선교사의 유대교와 경교 중국 전래 연구 및 중국과 서양의 교통상황에 관한 저술을 비롯하여 구미에서 중국학이 흥기한 이래 대표적

48) 李東華, 「연보고」, 327-328쪽. 대만 國家圖書館 검색 결과 『現代國民基本知識叢書』 第1輯으로 선정된 본서는 1955년 재판이 나온 이래 1977년(華岡出版有限公司)까지 총 6판 인쇄된 것으로 되어있다.

49) 직접 확인 못했지만 2008년 上海人民出版社에서 나온 簡體字本(2권)이 있는데, 전체 쪽수(773쪽)가 악록서사본(1075쪽)보다 적고 부록으로 방호의 「六十年來之中西交通史」와 韓琦의 「重讀方豪中西交通史」 및 참고서목이 첨부되어있다는 검색 결과로 보아 새롭게 편집한 것 같다.

50) 저자의 말에 따르면 증서는 역대 중국과 중국 以西의 유라시아 대륙 및 동남아와 남양 일대를 가리키며, 교통은 민족이동과 이민, 혈통·언어·습속의 혼합, 종교의 전파, 신화·우화의 流傳, 문자의 차용, 과학의 교류, 예술의 영향, 저술의 번역, 상품의 교역, 생물의 이식, 육지와 바다를 통한 특별한 여행, 사절왕래와 조약체결, 분쟁과 대립 및 크고 작은 전투 등을 포괄한다고 한다.

인 학자와 관련 저(역)서를 국가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④일본학자의 중국 연구에서는 신사학 도입 이후 일본의 동양사 연구를 개괄한 다음 동서교통사, 동양천문학사, 일중교섭(교통)사, 일본기독교(천주)교사, 일본과 서양 각국의 교통사, 동양문화의 서양 전파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⑤新疆·중앙아시아의 발굴과 돈황학에서는 신강지역 발굴조사(보고서) 및 중앙아시아 언어와 돈황문서 연구에 참가한 동서양 학자를 나열하고 있다.

제1편 「先史시대에서 秦·漢·魏·晉·南北朝시대」는 총 16장으로 되어있다. 1장에서는 선사시대 역사상의 두 가지 문제(중국인종의 유래, 중국과 서방 彩陶의 관계 등), 2장에서는 고대 전설 중의 중서관계, 3장에서는 선진시대 중국과 서방의 관계(춘추시대 攘夷運動, 이란과 인도문화의 전래 등), 4장에서는 한나라 이전 서방에 전파된 중국지식(차이나란 명칭, 중국 비단 등), 5장과 6장에서는 한나라의 서역 경영(張騫의 出使, 班超의 정벌 등), 7장에서는 한나라의 흉노 격퇴 이후 중서교통(교통로의 변천, 서역 지식과 식물·음악의 전래 등), 8장에서는 한·서역 간 교통의 기타 효과(求仙思想, 戰馬 보충, 비단 수출, 관개법 전파 등), 9장과 10장에서는 현대 중국과 인도의 교통(불교와 曆法·算學·예술의 전래, 교통과 무역 등), 11장에서는 한나라의 黎軒에 대한 인식(여헌에 대한 고증, 그리스문화의 전래 등), 12장에서는 한과 大秦의 관계(대진에 대한 고증, 로마와의 通使와 通商 등), 13장에서는 기원 전후 그리스와 로마 작가(스트라보, 세네카, 멜라, 플리니우스, 『에리트레아해 항해지』, 프톨레마이오스, 플로루스 등)의 중국 서술, 14장에서는 위·진·남북조시기의 중서교통(중국史書의 기록, 남해 諸國과의 무역, 외국인의 잡거와 귀화 등), 15장에서는 한말부터 남북조시기까지 서방 각국과의 불교 관계(불경번역승의 東來, 南海를 왕래한 승려, 求法譯經 승려 등), 16장에서는 法顯 등의 인도 방문과 공헌(법현의 저술, 법현의 路程, 귀국 후 행적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편 「隋·唐·五代에서 宋代」는 총 22장으로 나누어져있다. 1장에서는

수대의 중서교통(수 왕조의 해외교류와 영향, 裴矩와 『隋書』의 기록 등), 2장에서는 賈耽이 기록한 서방으로 가는 길, 3장에서는 당·송시기 중국과 서양의 해양선박, 4장에서는 당·송시기의 市舶使(창설과 명칭, 직무와 條例, 官制와 場務 등), 5장에서는 당·송시기 무역항(廣州와 交趾, 杭州와 明州, 秀州와 上海, 澱浦와 江陰, 泉州·漳州와 福州, 揚州와 密州, 瓊州와 屬邑 등), 6장에서는 송대 사람이 기록한(『嶺外代答』, 『諸蕃志』, 『宋史』 등) 중국과 남양·서남아시아 간의 교통, 7장에서는 당·송시기 외국인 거류민(거주, 범죄, 교육, 혼인, 유산 등)에 대한 관리, 8장에서는 당·송시기의 외국상인(해운과 상품, 점포, 富豪, 행적, 胡俗, 胡姬 등), 9장에서는 당·송시기 중국에 온 흑인(공급, 관련 서술, 분석 등), 10장에서는 당·송시기 남해 화교의 창업(승려, 상인, 唐人 등 명칭의 내력), 11장에서는 수·당·송시기 중앙아시아와의 불교 관계(불경번역가의 동래, 玄奘 등의 구법여행 등), 12장에서는 수·당·송시기 전래된 인도의 학술(역법, 점성술, 天文曆算 서적과 인물, 醫學 등), 13장에서는 당·송과 인도·페르시아·아랍 사이의 정치관계(王玄策의 인도 출사, 인도·페르시아·대식의 사절, 탈라스 전투 등), 14장에서는 당·송시기 아랍인(코르다드베, 마수디, 아부 자이드 하산, 무할 힐 등)의 중국에 대한 기록, 15장에서는 당·송과 拂菻의 관계(블름에 대한 고증, 중국과 유럽 서적의 기록 등), 16장에서는 수·당·송시기 서양으로 전해진 중국 발명품(인쇄술, 제지술, 나침반, 화약 등), 17장에서는 수·당·송시기 서역인의 중국화(唐代 君臣의 외국 혈통, 서역의 중국화 등), 18장에서는 당·송시기의 조로아스터교(전래와 유행 등), 19장에서는 당·송시기의 마니교(전래와 분포, 敎理와 敎則, 인물과 조직, 정치와의 관계, 다른 종교와의 관계, 금지와 쇠락 등), 20장에서는 당·송시기의 경교(전래와 유행, 교리·敎義·교칙·조직, 정치 활동, 다른 종교와의 관계, 금지와 쇠락 등), 21장에서는 당·송시기의 회교(전래와 분포, 인물 등), 22장에서는 수·당·송시기 전래된 서방의 예술과 유희(조각·건축·그림, 음악·무용·百戲, 幻術·毬戲·雙陸 등)를 다루고 있다.

제3편 「蒙·元과 明」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몽고의 西征(내부 통일, 금나라 토벌 등), 2장에서는 元대의 郵驛제도(중서교통에 미친 공헌(역참의 연혁과 조직, 유라시아 교통에 미친 영향 등), 3장에서는 원대 남해와의 교통(남해 經略, 화교 진출, 남해 출사와 원정 및 여행 등), 4장에서는 원대의 대외무역(무역조례, 해운업자에 대한 억압, 인도와의 무역 개황 등), 5장에서는 원대의 무역항(천주와 광주, 절강의 무역항, 상해 시박사 등), 6장에서는 원대에 서역을 여행한 중국인(耶律楚材, 長春真人, 劉郁과 常德 등), 7장에서는 원대 중국을 기술한 유럽인(카르피니, 뤼브룩, 니콜로 폴로, 마르코 폴로, 몬테코르비노, 오도릭, 마리놀리 등)과 아랍인(아블피다) 그리고 아프리카인(이븐 바투타), 8장에서는 원대의 기독교(경교의 유적, 관리기구 및 성당 분포, 특권과 다른 종교와의 관계, 마르 사르 기스의 업적 등), 9장에서는 원대의 이슬람교(분포 개황, 광주 등지의 이슬람교, 무슬림과 중국문화 등), 10장에서는 원대의 기타 외래 종교(유대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11장에서는 원대의 중서 학술 교류(서역 천문기기와 역법 전래, 그리스 기하학의 유입, 외국어 교육, 서방 의학과 예술의 유입, 중국 주판의 유럽 전파, 중국이 이슬람 예술에 미친 영향, 元曲과 인도·이슬람의 관계, 동래 서역인의 중국화 등), 12장에서는 명초 서방(사마르 칸트, 페르시아)·남양과의 陸海 교통(남양정책, 해외무역 정책 등), 13장에서는 정화의 서양 항해(기록과 연구, 항해 준비, 역대 출사, 소선단의 항로, 성과, 보좌인물, 해외사절망 등), 14장에서는 명초 유럽인(클리비호, 페르시아 주재 사절, 니콜로 콘티 등)의 중국에 관한 기술, 15장에서는 명대 중엽 중서교통과 화교의 개척(동남아시아·남양군도·중앙아시아·서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서방 관련 중국인의 저술 등), 16장에서는 명대 중엽 유럽인의 동방 진출(신항로의 발견,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의 항해, 포르투갈 선박의 중국 도착 등), 17장에서는 가정연간 중국 연해 지역에서의 서양인의 활동(포르투갈인의 광동·절강·복건 침범, 천주교 선교사의 중국 방문, 명대의 四夷館 등)을 서술하고 있다.

제4편 「明·淸 교체기 중서문화 교류사」는 들어가는 말[引言] 외 총 14장으로 구분되어있다. 1장 천문학과 曆學에서는 명말 흠천감의 서양역법의 채택과 曆局, 천문역법 서적의 번역과 편찬 및 천문관측, 명·청시기 중국인의 서양천문학 연구성과, 서양천문관측 기기의 수입과 제작, 서양천문역법에 대한 반대와 논쟁, 흠천감 재직자 외 서양인의 천문연구, 새로운 서양천문학설의 전래, 페르비스트 이후 흠천감에 재직한 서양선교사, 가경연간 관상대의 기상 기록 등 9개 절, 2장 수학에서는 『기하원본』의 번역과 연구, 기타 기하학 서적의 번역과 편찬, 이지조·孫元化가 번역·저술한 수학서, 割圓·對數·代數의 수입 및 저작, 서양수학이 미친 영향, 『西鏡錄』의 내용과 필사본, 청초 暢春園 蒙養齋에서의 수학 전수, 서양수학 전래 초기 중국인의 태도 등 8개 절, 3장 기계공학과 물리학에서는 테렌츠의 『奇器圖說』, 王徵의 『諸器圖說』, 우르시스의 『泰西水法』, 페르비스트의 증기터빈 실험, 청초 자동기기와 시계의 수리·제작, 중국인의 시계 관련 저작, 중국인의 서양물리학 연구 등 7개 절, 4장 軍器와 兵制에서는 佛朗機의 전래와 복제, 1차/2차 포르투갈 화포 구매와 병사 모집, 포르투갈 병사 모집이 야기한 반발, 손원화 휘하 포르투갈 병사의 헌신, 서양대포 및 서적의 조선 전래, 청군이 획득 모조한 화포, 아담 샬의 화포 주조와 『則克錄』, 南明과 吳三桂 軍中の 서양화포 등 9개 절, 5장 생물학과 의학에서는 최초로 전래된 서양생물학 지식, 최초로 한역된 서양동물학 서적, 명·청시기 서양인의 중국동식물 연구, 서양생리학·심리학·의학의 전래, 『泰西人身說概』에 나오는 해부생리학, 서양의학 및 생리학 등에 대한 중국인의 연구, 서양약물학과 병리학 및 치료법의 전래, 서양 醫事교육과 병원제도의 전래, 서양의학과 약물학에 대한 반대, 서양선교사의 중국 의학과 약물학 소개 등 10개 절, 6장 지리학(상)에서는 地圓說의 최초 소개,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와 중국지도, 마테오 리치 세계지도의 영향과 공헌, 벤토 고에스가 육로로 중국에 온 과정, 『東西洋考』에 기술된 해양선박과 針路, 알레니의 『職方外紀』와 『西方答問』, 『직방외기』에 기술된 해양선박과 바닷길, 룡고바르디

의 『地震解』 편저, 『渡海苦跡』에 기록된 항해상황, 徐霞客과 서양선교사의 관계, 삼비아시와 보임 등이 그린 지도, 그뤼버와 도르빌르의 아시아 횡단여행 등 12개 절, 7장 지리학(하)에서는 페르비스트의 『坤輿圖說』과 『坤輿外記』, 樊守義의 유럽여행기, 강희연간 서양선교사가 제작한 전국 지도, 『皇輿全覽圖』의 제작방법과 공헌, 티베트/유구지도 제작과정, 18세기 유럽에서 간행된 중국지도, 『大清一統輿圖』의 제작, 『坤輿全圖』와 地動學說, 『海錄』과 謝清高的 생애, 서양지리학에 대한 반대 등 11개 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8장 음악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가져온 서양악기와 『西琴曲意』, 아담 샬의 공헌과 새로운 악기, 명말 중국 각지의 서양음악, 순치·강희연간 북경 천주당의 악기, 강희제의 서양음악 사랑과 서양선교사의 전수, 『律呂正義』 편찬과 페드리니, 건륭연간 궁중의 서양음악과 중국음악 서적의 번역 등 7개 절, 9장 회화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전한 서양화와 『墨苑』, 알레나·아담 샬·로차가 전한 서양화, 서양화에 대한 찬사와 반감, 강희연간 궁중의 서양화와 선교사 화가, 서양화의 보급과 傳習, 카스틸리오네의 중국화와 건륭·가경연간의 서양화, 시켈바르트·아티레·판지 등의 업적, 『乾隆戰功圖』의 제작과정, 가경 이전 중국판화에 미친 서양의 영향 등 9개 절, 10장 건축에서는 마카오, 남경과 북경, 대만, 광주, 상해·항주 등지의 서양건축, 서양선교사와 원명원 등 6개 절, 11장 어문학에서는 『西字奇蹟』과 『西儒耳目資』, 라틴어 발음표기 학습과 반대, 紅毛字의 전수, 마카오와 포르투갈어, 라틴어의 응용과 西洋館, 문법과 자전의 편역, 중국사상이 유럽문학에 미친 영향 등 7개 절, 12장 유럽종교와 신학·철학 등의 동방 전래에서는 명말 천주교의 재 전래, 명·청시기 천주교의 성행과 전파, 천주교의 성행 원인과 배경, 불교와 천주교의 충돌 및 논쟁, 예수회 선교사와 理學家의 논쟁, 천주교와 중국사회 습속의 충돌, 서양논리학·신학·철학 등의 수입, 점성학의 전래와 교회 내부의 미신, 민간의 교회 배척 및 禁教, 천주교 교세의 약화 등 10개 절, 13장 중국經籍의 서양 전파에서는 명말 이래

건륭연간까지 西譯된 경적, 서양선교사의 『역경』 연구, 경적 전파가 서양에 미친 영향 등 5개 절, 14장 중국미술의 서양 전파에서는 로코코 시대, 중국정원 배치기술의 성행, 중국회화의 전파와 유행, 중국用具의 유행, 중국瓷器의 西洋化와 전파 등 5개 절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서의 연구범위를 왜 명·청 교체기까지로 한정했으며 문화 교류에만 집중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저자가 본서에서 따로 밝힌 바 없지만, 조약체결을 비롯한 외교와 통상 및 19세기 이래 중서 간의 왕래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전문연구서가 나와 있었고⁵¹⁾,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에 있어 그 영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화라는 견해를 저자가 일찍부터 갖고 있었기⁵²⁾ 때문으로 보인다.

2. 인용 · 참고 자료

본서에서 인용·참고한 자료는 크게 선행연구, 관련자료, 신 발굴자료(다음절에서 설명)로 나눌 수 있는데, 일일이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에⁵³⁾ 대표적인 것만 언어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중국어: 『大陸雜誌』, 『歷史語言研究所集刊』 등 각종 학술지(논문집)에 실린 저자의 논문을 포함한 李濟之, 勞貞一, 岑仲勉, 吳晗, 翁文灝, 閻宗臨 등의 글은 제외하고 단행본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서로는 白壽彝의 『中國交通史』(1936), 尙達의 『唐代長安與西域文明』(1933), 王國維의 『流沙墜簡』(1914)와 『觀堂集林』(1923), 李儼의

51) 黃大受, 『中西交通史』第四·五冊, 『自由中國』12-5, 1955, 182쪽.

52) 『中外文化交通史論叢』(第一輯), 『自序』.

53) 혹자는 인용한 자료가 100여 종 이상이라고 하였으나(彭順生, 앞의 논문, 82쪽) 필자의 추산에 따르면 그 수배에 달한다.

『中國算學史』(1937), 鄭鶴聲의 『鄭和遺事彙編』(1948), 陳垣의 『元也里可溫考』(1917)와 『元西域人華化考』(1934), 陳寅恪의 『隋唐制度淵源略論考』(1940)와 『唐代政治史述論考』(1941), 馮承鈞의 『歷代求法翻經錄』(1931), 『景教碑考』(1936), 『中國南洋交通史』(1937), 黃伯祿의 『正教奉褒』(1904)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료를 고증·교주한 책으로는 沈曾植의 『島夷志略廣證』(1912-13), 王國維의 『長春真人西遊記注』(1926), 丁謙의 『西遊錄地理考證』, 『長春真人西遊記地理考證』, 『元劉郁西使記地理考證』(모두 1915), 풍승균의 『瀛涯勝覽校註』(1935), 『星槎勝覽校註』(1938), 『諸蕃志校註』(1940)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Chavannes의 『宋雲行記箋註』(풍승균역, 1934), 藤田豊八의 『島夷志略校註』(1915), 足立喜六의 『法顯傳考證』(何健民·張小柳譯, 1937) 등이 있으며, 중외관계사 명저 선집인 張星烺編注, 『中西交通史料匯篇』(1930)이 있다.

그 외 외국학자의 연구성과를 번역한 것으로는 Chavannes가 編著한 『西突厥史料』(풍승균역, 1932), Gabriel Ferrand의 『崑崙及南海古代航行考』(풍승균역, 1933), Henry Bernard의 『天主教十六世紀在華傳教誌』(蕭瀟華譯, 1936), Pelliot와 Chavannes의 『摩尼教流行中國考』(풍승균역, 1931), Pelliot의 『交廣印度兩道考』(1912)와 『鄭和下西洋考』(1935)(둘 다 풍승균역), Pfister의 『入華耶穌會士列傳』(풍승균역, 1938)⁵⁴⁾, 藤田豊八의 『中國南海古代交通叢考』(하건민역, 1936), 白鳥庫吉의 『塞外史地論文譯叢』(王古魯譯, 1938) 및 풍승균이 編譯한 『史地叢考』(1931), 『史地叢考續編』(1933),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1934),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續編』(1936) 등이 있다.

일본어: 『東洋學報』, 『史學雜誌』, 『歴史と地理』 등 각종 학술지(논문

54) 저자는 이 책 안에 수록된 사람 중에 중국인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入華란 번역은 잘못이라 지적하고 있다(『중서교통사』, 이하 쪽수만 표시함, 760쪽).

집)에 수록된 石田幹之助, 白鳥庫吉, 荻原弘明, 伊東忠太, 神田喜一郎, 山本達郎, 桑田六郎, 中村久四郎 등의 글을 제외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연구서로는 藤田豊八의 『劍峯遺草』(1930)와 『東西交渉史の研究』(1932-1933), 飯島忠夫의 『支那古代史論』(1925), 桑原隲藏의 『蒲壽庚の事蹟』(1935), 新城新藏의 『東洋天文學史研究』(1933), 羽田亨, 『元朝驛伝雜考』(1930), 長廣敏雄의 『帶鉤の研究』(1943), 佐伯好郎의 『支那基督教の研究』(1943)와 『清朝基督教の研究』(1949) 등이 있다. 그 외 사료 해설서로는 堀謙徳의 『解説西域記』(1914), 藤田豊八의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1911) 등이 있다.

서양어: *Young Pao,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등의 학술지에 실린 Pelliot, Laufer, Cordier, Chavannes 등의 논문 및 자료소개를 제외하고 단행본 일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nderson, *Preliminary Report on Archaeological Research in Kansu*, 1925.

Ball, *Chinese and Sumerian*, 1913.

Bretschneider, *Early European Researches into the flora of China*, 1881.

Broomhall, *Islam in China: A Neglected Problem*, 1910.

Charignon, *Apropos des voyages aventureux de Fernand-Mendez Pinto*, 1936.

Charlesworth, *Trade Routes and Commerce of the Roman Empire*, 1926.

Chavannes, *Les document chinois decouverts par Aurel Stein dans les Sables du Turkestan Oriental*, 1913.

Conrady, *Indischer Einfluss in China*, 1906.

Dehaisnes, *Vie du P. Nicolas Trigault*, 1864.

D'Ohsson, *Histoire des Mongols depuis Tchinguiz-Khan jusqu'à Timour Bey ou Tamerlan*, 1834 - 35.

Ferrand, *Le K'ouen-louen et les anciennes navigations interocéaniques dans les mers du sud*, 1919.

Froger, *Relation du premier voyage des Français à la Chine*, 1926.

Grousset, *De la Grèce à la Chine*, 1948.

Hirth, *China and The Roman Orient*, 1885.

Moule, *Christians in China before the Year 1550*, 1930.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é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934.

Rockhill, *The Journey of William of Rubruck to the Eastern Parts of the World*, 1900.

Yule, *Cathay and the Way Thither*, 1866.

2) 관련자료

한문자료: 古宮博物院 文獻館에서 1928년부터 간행한 『掌故(文獻)叢編』와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에서 1930년부터 편집 간행한 『明清史料』 및 학술지 등에 소개된 미간 자료 외에 기 출간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史記』, 『漢書』부터 『明史』에 이르는 역대 正史와 이들에 대한 註釋(補註)書, 『明實錄』, 『清實錄』, 『東華錄』, 『東華續錄』 등 관찬 사서와 『資治通鑑』, 『契丹國志』, 『建炎以來繫年要錄』, 『三朝北盟會編』, 『元朝秘史』, 『崇禎長編』, 『二十二史劄記』 등 다수의 사찬 사서 및 『通典』, 『通志』, 『文獻通考』, 『宋會要輯稿』, 『經世大典』, 『明會典』, 『大清會典事例』, 『唐律疏議』, 『通制條格』, 『明律集解』 등 여러 제도와 법률 관련 자료를 인용·참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고대 典籍 외 『冊府元龜』, 『永樂大全』, 『古今圖書集成』, 『四庫全書』 등 관찬 叢書와 『叢書集成』 등 사찬 총서 및 『北堂書鈔』, 『藝文類聚』, 『太平廣記』, 『太平御覽』, 『文苑英華』 등

類書와 『全唐詩』, 『全唐文』 등의 總集은 물론 수많은 지방지와 지리서, 목록서와 해제, 여행기와 사행기록, 필기와 시문집 그리고 각종 字書, 문학(시, 사, 소설, 희곡 등), 음악, 미술, 수학, 천문, 의약, 종교(불교, 도교, 경교 등), 군사, 金石 관련 자료도 대량 활용하고 있다.

그 외 동아시아 각국의 史籍 예컨대 『唐大和上東征傳』, 『入唐求法巡禮行記』, 『性靈集』, 『三代實錄』, 『日本書紀』, 『續日本記』, 『日本續紀』(이상 일본), 『往五天竺國傳』,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朝鮮王朝實錄』⁵⁵⁾, 『考同考異』⁵⁶⁾ 중의 『西洋問答』⁵⁷⁾(이상 한국), 『大越史記』(월남), 『歷代寶案』, 『球陽』(이상 유구) 등을 참고하여 사실을 고증하고 있는 점 역시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서양자료: *Le Journal asiatique*, *Le Bulletin Catholique de Pékin* 등에 실린 자료 외에 출간된 책(번역 포함) 일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Civezza, *Storia universale delle Missioni Francescane*, 1857-.

Clavijo, *Historia del gran Tamorlan e itinerario y enarracion del viage, y relacion de la Embaxada que Ruy...*, 1412.

Du Hald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1735.

Ferrand, *Relations de voyages et textes géographiques arabes, persans*

55) 예컨대 皮島副將 劉興治의 반란일자, 조선 進慰使 鄭斗源 일행의 사행일정, 로드리게스(Rodrigues)가 선물한 물품목록 등을 중국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56) 아래 야마구치의 글에는 安鼎福의 『散同雜異』에 수록되어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각주에서는 책명을 『散同散異』라 달리 표기하고 그 22책인 『서양문답』은 안정복이 安應昌의 遺著 『安師傳應昌記聞』에서 轉載한 것이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안정복의 필사본 『雜同散異』(전 53책)를 야마구치와 저자가 거둬 잘못 인용(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57) 山口正之, 「清朝在支歐人と朝鮮使臣」, 『史學雜誌』44-7, 1933에서 재인용한 것임.

et turks relatifs à L'Extrême Orient du VIIIe au XVIIIe siècles, 1913-14.

Golubovich, *Biblioteca Bio-Bibliografica della Terra Santa et dell'Oriente Franciscano*, 1927.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1702-1776.

McCrinkle, *Universal Christian Topography*, 1897.

Memoires concernant l' Histoire, les Sciences, les Arts, les Moeurs, les Usages etc, des Chinois Par les Missionnaires de Pekin, 1776-1814.

Mohl, *Le Livre des Rois*, 1838-1878.

Relation des Voyages faits par les Arabes et les Persans dans l'Inde et á la Chine, dans le IXe Siècle de l'ère chrétienne, texte arabe et traduction enrichie de notes et d'éclaircissements by M. Reinaud, 1845.

Renaudot, *Anciennes Relations de l'Inde et de la Chine de Voyageurs Mabometans qui y alterent dans le IX siècle*, 1718.

Societas Jesu, *Selectae Indiarum epistolae*, 1887.

Wadding, *Annales Minorum Seu Trium Ordinum A S. Francisco Instittorum*, 1731.

Wyngaert, *Sinica Franciscana*, 1929.

IV. 『중서교통사』의 특징과 한계

선행연구에서는 본서의 특색으로 ①활용한 사료가 폭넓고 내용이 풍부하며, ②사실 고증을 중시하여 개인적 논단과 해석을 최소화하였고, ③분석이 정밀하고 견해가 뛰어나며⁵⁸⁾, ④명·청 교체기 중서문화교류에 중점을 두었고⁵⁹⁾, ⑤남들이 주목하지 못한 개별 연구를 하였다는 점⁶⁰⁾을 들고 있다. 이 중 ①은 앞 절에서 대략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기존 평가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그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1) 적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저자가 직접 처음으로 발굴함으로써 중서교통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⁶¹⁾

- ① 북경 北堂圖書館에서 1946년에 발견한 가경연간 흠찬감 관상대의 감상관측 기록.⁶²⁾
- ② 북경 민간에서 1946년 구입한 孫璋의 『性理眞詮』 초고 필사본 일

58) 彭順生, 앞의 논문. 82-84쪽. 修彩波는 저자가 세계사의 배경 속에서 중서관계를 분석 관찰 하고(예컨대 춘추시대 양이운동 및 한나라와 흉노의 대립이 야기한 민족이동의 결과 등), 직접적이고 큰 관계 중의 간접적이고 작은 관계(예컨대 중국과 그리스·이집트의 관계, 중국 내 黑人の 事迹, 市舶司와 港口史 등)를 중시함으로써 중서교통사 연구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59) 이에 대해 修彩波는 서술 분량 면에서 이전 시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서술 방식도 시대 순이 아닌 분과학문별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자가 이 시기를 중국과 서양이 평등과 존중의 정신으로 상호 접촉했던 교류 융합의 가장 이상적인 기회로 여겼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60) 修彩波, 「方豪與中西交通史研究」, 141-148쪽. 그 외 중서교통사 연구를 집대성하였고 실증 사학의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도 들고 있는데, 彭順生의 평가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61) 彭順生은 ②, ③, ⑥와 함께 『名理探』 번역의 底本이 되었던 포르투갈 Coimbra대학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서 원서를 저자가 북당도서관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보았으나 착오이다.

62) 목각으로 붉게 인쇄된 표에 관측 내용을 붓으로 적어 넣은 총 4개의 표이며, 1814년 11월 22일, 1815년 1월 20일, 1816년 3월 5일, 1816년 9월 1일에 각각 작성된 것이다(722-730쪽).

부.63)

- ③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에서 1949년 발견한 『天步眞原』의 『世界部』·『性情部』·『選擇部』 필사본.⁶⁴⁾
- ④ 리스본 Torre do Tombo 기록보관소에서 1952년 발견한 가경 11년 (1806) 8월 초3일 香山縣 左堂 吳가 謝淸高와 포르투갈인의 소송에 대해 답한 통지문[諭].⁶⁵⁾
- ⑤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서 1952년 발견한 서방 생물학에 관한 최초의 한역서 『無極天主正教眞傳實錄』.⁶⁶⁾
- ⑥ 파리 新屋書店(G. P. Maisonneuve)에서 1952년 발견한 동판화 「臺灣戰圖」.⁶⁷⁾

특히 뒤의 3건은 3개월 남짓의 짧은 유럽 공무 출장 중 찾아낸 자료라는 점에서 저자의 내공과 근면함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 밖에 저자가 직접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⁶⁸⁾, 북경도서관⁶⁹⁾, 북당도서관⁷⁰⁾, 天水도서관⁷¹⁾, 로마교황청 傳信部 기

63) 이 필사본은 1948년 저자가 북경을 떠날 때 북당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한다(1004쪽).
 64)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Smogolenski가 쓰고 薛鳳祚가 번역한 현존 유일의 『천보진원』의 내용과 그 소장처를 확인해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1018-21쪽).
 65) 청 중엽 외국배를 타고 14년간 해외 각지를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책인 『海錄』의 주인공 사정고가 실존인물임을 방증하는 자료이다(881-884쪽).
 66) 명말 서양선교사가 저술(번역)한 한문서적 가운데 두 번째로 출간(1593년)된 책의 실체를 확인하고 내용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788-789쪽).
 67) 귀국 후 대만 성립박물관에 소장된 「대만전도」를 보고서 그것이 건륭제의 명으로 林爽文的 난 평정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925쪽).
 68) 黃君開가 지은 『遠遊略』 필사본(933쪽).
 69) 『摩尼教殘經』; 『回回藥方』; 焦循의 『乘方釋例』; 唐王이 Sambiasi에게 답하는 詩; 『圓明園工程做法』; 鄭芝龍이 삼바이시에게 증정한 시(398, 582, 742, 786, 945, 984쪽) 등.
 70) 1612년 쾰른에서 출판된 라틴어본 *Euclides, Elementorum libri XV*; Vitruvius, Stevin, Agricola, Ramelli의 저작; 라자로회 선교사 Pedrini의 필사본 유작 *Sonate a Violino Solo*

록물실⁷²⁾, 바티칸도서관⁷³⁾, 로마 예수회 총회 기록물실⁷⁴⁾, 로마 라자로회 기록물실⁷⁵⁾, 파리 국립도서관⁷⁶⁾, 베를린 국립도서관⁷⁷⁾ 등에 소장된 각종 자료를 소개하고 소장(등록)번호를 안내함으로써 후속연구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2) 학계에서 오랜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비교

col basso del Nepri di, Opera terza Parte Prima; 『명리담』의 저본이었던 원서; Vagnoni의 『民治西學』; 賀清泰의 『古新聖經』 필사본(733, 750, 902-903, 1011, 1013, 1015쪽) 등.

71) 王徵의 『額辣濟亞隔造諸器圖說』 친필 원고(751쪽).

72) 건륭 18년(1753) 포르투갈 국왕 Jose 1세가 파견한 Pacheco의 『使華記實』; 강희 53년(1714) 6월 22일 황제의 유지(759-760, 901-902쪽) 등.

73) 삼비아시가 만든 『坤輿全圖』, Aleni의 『萬國全圖』, Michał Boym이 제작한 중국 지도; 강희 60년(1721) 정월 초5일 標下千總 陳秉誌와 撫標千總 袁良棟이 올린 상주문; 마테오 리치가 쓴 『西字奇蹟』; 서양선교사가 연구한 『易經』에 관한 중국어 원고 14종; Visdelou가 라틴어로 번역한 『書經』 4권 6책(850, 900, 908, 1048, 1049쪽) 등

74) 福王의 『聖諭歐邏巴陪臣畢方濟』; Rocha가 지은 『天主聖像略說』; 마테오 리치와 Ruggieri가 공저한 필사본 *Dizionario Portoghese-Chinese*; 복왕이 삼비아시에게 하사한 시; 루지에리가 쓴 『天主實錄』 원본; 王泮이肇慶 천주당에 써준 글씨(786, 909, 947, 983, 992, 994쪽) 등.

75) Appiani가 로마에 보낸 편지(903쪽).

76) 『大秦景教三威蒙度讚』 필사본; 마르코 폴로 여행기 필사본; Andreas의 육필과 Monte Corvino의 처음 2통의 편지 傳抄本 원본; Juzayy의 여행기 육필; 마테오 리치의 『西國記法』; Tudeschini의 『渡海苦跡』; 『閩中諸公贈泰西諸先生詩初集』 필사본, 王徵의 『畏天愛人極論』 필사본; d'Anville이 제작한 중국지도; Benoit와 동판 製版상인이 체결한 계약서; 『睿鑿錄』; 프랑스 인도회사(Compagnie des Indes)와 廣東十三行 간의 乾隆戰功圖 동판화 제작 계약서; 沈源과 唐岱가 그린 『圓明園圖』; 楊廷筠의 『鸚鵡不並鳴說』 필사본; Furtado가 번역한 『명리담』 10권본; Bouvet의 *Idea generalis Doctrinae libri I-king* 라틴어 초고와 부베가 북경에서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 원본; Prémare의 *Essai d'introduction préliminaire à l'intelligence des King* 필사본과 강희 46년(1707) 양력 10월 25일 프레마르가 建昌府에서 유럽에 보낸 편지 원본; Régis가 라틴어로 쓴 *Dissertationes et notae criticae in primam partem commentarii I-King*(415, 519, 525, 532, 799, 845, 849, 874, 876, 922, 924, 946, 998, 1010, 1048, 1049, 1050쪽) 등.

77) 1685년 Christian Mentzel이 출판한(미간) *Specimen lexici sinici et grammaticae institutio*; 1710년 Francisco Diaz가 라틴어로 쓴 『중국어-스페인어 자전』 원고(964-965쪽) 등.

검토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어 해결했다는 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마르코 폴로가 정말 중국을 방문했는지, 그의 『동방견문록』이 진짜 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영락대전』 권19418 ‘勘字韻’⁷⁸⁾에 인용된 『經世大典』 「站赤門」 조의 지원 27년 8월 17일자 公文에서 발견함으로써 마르코 폴로 일가가 분명 중국에서 출발하여 일한국을 거쳐 귀국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518-519쪽).⁷⁹⁾
- ② 명말 서양선교사들이 소개한 과학이 당시 유럽의 최신 지식인지 아닌지에 대해 王徵이 쓴 『遠西奇器圖說錄最』와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갈릴레이가 개량한 신식 망원경이 그의 생전에 중국과 조선에 수입되어졌으며, Giacomo Rho의 『五緯曆指』, 아담 샬의 『曆法西傳』, 『新法曆書』(즉 『崇禎曆書』)의 내용을 통해 地動說과 新星說⁸⁰⁾ 및 은하수의 실체 등도 갈릴레이가 살아있을 때 중국에 알려졌음을 밝히고 있다(709-710, 719-721쪽).

(3)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집중 연구하였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전의 중서교통사 연구가 보통 장건의 서역출사를 그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기 발견된 관련 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범위를 선진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연하지 않겠다.
- ② 일반적으로 玄奘을 불경번역의 名家로만 알고 있을 뿐 그가 산스크리트어로 『會宗論』 3천 頌과 『真唯識量頌』을 저술하였고 이에 대

78) 원서에는 권1948 ‘站字韻’으로 잘못 적혀있다.

79) 彭順生은 이를 새로운 사료발굴이라 강조하였으나 발견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80) 목성 주위에 4개의 위성이 있음과 토성 주위에 2개의 위성이 있음을 발견한 것을 말한다.

해 당시 인도 학술계에서 단 한 구절도 깨우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귀국 후 法相宗의 祖師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320쪽).

- ③ 명말 淸軍을 막기 위해 서광계와 이지조가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대포를 구매하고 포르투갈 병사를 모집한 것은 서양 무기가 정식으로 중국에 유입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자료 유실과 명·청 왕조교체라는 대변동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저자는 그 전후시말과 이에 대한 반발 및 포르투갈 병사의 활약 등을 4개 절에 걸쳐 세심하게 고증하여 세상에 알리고 있다(769-780쪽).
- ④ 서학이 중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서광계와 이지조의 공로와 역할만을 중요시하고 왕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는데, 저자의 오랜 연구 결과 그가 기계공학과 물리학 등 서양과학의 수입과 각종 기구의 발명 및 『서유이목자』의 출간에 기여한 업적 등을 새롭게 밝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747-753, 949-950쪽).
- ⑤ 청초 아담 살을 보좌하여 역법 개정에 참여하고 『곤여전도』 등을 만든 것으로 잘 알려진 페르비스트가 일찍이 중국에서 증기터빈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1687년 *Astronomia Europea* 잡지에 발표했다는 사실과 실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열기관 역사에서 그 것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755-756쪽).
- ⑥ 강희제 때 전국지도(『황여전람도』) 제작 중 Régis와 Jartoux의 실측 결과 經度의 위아래 길이가 다름을 발견함으로써 유럽보다 먼저 뉴턴의 지구 扁圓說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868쪽).
- ⑦ 『不得已辯』을 저술하고 『超性學要』를 번역하여 이름을 날린 Buglio가 회화에도 뛰어났으며, 원명원의 서양건축 특히 분수연못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Benoist가 『서경』과 『맹자』를 라틴어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그의 『서경』 번역은 이전 모든 번역본보다 훨씬 뛰어났

다는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913, 1052쪽).

- ⑧ 王宏翰이 편찬한 『醫學原始』 제2권이 거의 전부 바노니의 『空際格致』, 알레니의 『性學栞述』, 아담 샬의 『主制羣徵』, 페르비스트의 『測驗紀略』을 베낀 것이라는 점과 후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Magalhaens 등이 편찬한 『西方要紀』가 사실은 알레니의 『西方答問』을 발췌한 것이라는 점 및 명말청초 중국과 서양 인사들이 Trigault의 『서유이목자』로 西音 漢譯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807-808, 841, 948-949쪽).
- ⑨ 서양선교사들의 중국經籍 연구와 번역에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가 유럽 사회(종교, 철학, 정치 등)에 미친 영향⁸¹⁾ 및 중국미술의 서양 전파와 유행에 대해서도 각각 한 장씩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1046-1075쪽) 서양 자연과학의 중국 전래에 편중된 다른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4) “중서교통사 연구를 집대성한 명저”라는 평가에 걸맞게 관련 선행 연구를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오류를 바로잡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방면의 고증을 거쳐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것들이 있다.

- ① 한 무제의 大宛정벌 목적 중 하나가 말의 품종개량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여러 사료를 동원해 전쟁으로 인한 戰馬 손실보충이 우선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장건의 서역개척 목적이 통상(과잉 생산된 비단 판매)과 시장조사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전도된 잘못된 의견임을 지적하고 있다(117-120쪽).
- ② 각종 자료와 동서양 학자의 연구를 종합하여 ‘黎軒’이란 지중해 동부

81) 저자는 그 영향을 유럽 계몽운동의 기원, 反교회 사상의 근거, 중국(인)에 대한 서양의 인식 변화 등으로 개괄하고 있다.

의 그리스 식민지, 또는 알렉산더대왕 원정 때 그리스인의 족적이 닿았던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 그렇지 않으면 로마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고증하였다. 또 ‘大秦’에는 광의와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 협의의 ‘대진’은 문헌에 따라 일정치 않지만 광의의 ‘대진’은 ‘西方’ 즉 ‘海西’를 통칭하는 말로서 오늘날의 ‘서양’과 같은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47-150, 155-158쪽).

- ③ 『역대구법변경록』의 저자가 동진과 유송시기 외국인 불경 번역자의 국적과 북위·북제·북주시기 서행하여 구법한 寶暹 일행 중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수 및 현장이 가져온 경전의 수량을 잘못 계산하였음과 慧超가 安西에 도착한 연도를 잘못 알았음을 지적하고 있다(211-212, 319, 321쪽).
- ④ 『중서교통사료회편』의 편자가 比定한 ‘西王母의 나라’ 위치에 문제가 있으며 원대 옹구트부 출신 기독교인의 한문이름에 대한 對音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책에 수록된 『西使記』에 나오는 음력 날짜의 양력 환산 착오 1곳, 현존하는 몬테코르비노의 2번째 편지 내용 중 年數 오기를 바로잡고 있다(44, 542, 509, 524쪽).
- ⑤ 『원야리가온고』 중의 한자표기 오류 2곳, Mar Elijah란 인물과 연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訂正하고 있다. 또 같은 책에서 야리가온 교도로 단정했던 사람이 최근 연구결과 무슬림으로 밝혀졌으며, 야리가온이 진상한 ‘약물’과 ‘명약’이 예수 무덤의 聖油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 외 『원서역인화화고』에서 천력 2년을 천력 3년으로 잘못 적었음을 바로잡고 원대 무슬림 출신 중국 희곡 작가 4명을 더 보충하고 있다(549, 550, 546, 582, 564, 593쪽).
- ⑥ 宋晞가 기록한 북건성 南安 九日山の 송대 석각과 陳槩仁의 『閩中金石略』에 나오는 석각 내용을 통해 泉州에서 기풍 행사를 진행했던 곳이 구일산 延福寺 내 靈岳祠(通遠祠 또는 通遠王廟로도 부름)임을 고증하였고, 吳相湘이 1936년 북경도서관에서 발견한 『律呂纂

要』 한문 精抄本의 정확한 저자 및 『律呂正義續篇』과의 관계에 대한 오상상의 추론 근거를 서양자료와 연구를 이용해 보완하고 있다(252, 903-904쪽).

- ⑦ 정검이 『元劉郁西使記地理考證』에서 유육의 출신지와 常德을 유육의 본명이라고 잘못 보았으며, 『暖紅室匯刻傳奇』^{본82)} 『紅拂記』에서 祆자를 모두 袂자로 잘못 쓰고 있고, 羅振玉이 『西夷館考』의 저자를 汪俊으로 잘못 알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姚寶猷가 「基督教士輸入西洋文化考」에서 빠뜨린 천문역산에 관한 중국의 여러 서적 및 서양 수학의 영향을 받은 저자를 보충하였고, 『明季西洋傳入之醫學』(中華醫史學會 鈞石出版基金委員會, 1943)에서 『직방외기』에 나오는 ‘哥阿’를 크레타 섬으로 오인한 것을 인도의 고아로 바로잡고 있다(509, 574, 687, 738-741, 813쪽).
- ⑧ 佐伯好郎가 『大秦景教宣元至本經』 필사본 殘卷에 남아있는 마지막 30행의 458자를 30여 행 430여 자라고 잘못 적었음과 唐代 大秦寺 소재지에 대한 고증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藤田元春가 명말의 밀수항 Liampo(즉 雙嶼)를 寧波로 잘못 파악했음을 밝히고 있다(417, 419, 674쪽).
- ⑨ Laufer가 중국의 유태인이 인도로부터 왔다고 단정한 주장⁸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였고, Pfister의 책에서 로드리게스 등이 손원화의 군영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한 곳을 定州로 착각한 것과 d’Incarville이 프랑스에 보낸 과꽃(Reine-Marguerite)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도 오기를 정정하고 있으며, 북당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 『六國字典』 원고를 실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568, 782,

82) 청말 선통연간부터 1923년까지 차례로 간행된 昆曲 劇本總集으로 편자는 劉世珩이다.

83) “A Chinese-Hebrew Manuscript”,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46-3, 1930.

796, 964쪽).

- ⑩ 저자 본인이 쓴 기존 논문의 오류에 대해서도 수정하고 있으니, 하나는 송대 천주 등지의 기풍행사의 연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희연간 서양선교사의 운남 지도 제작에 관한 글이다(253, 864쪽).

그 외 인용하거나 참고한 동서양 자료⁸⁴⁾ 중의 각종 표기오류와 연도, 인명, 지명, 사실관계 등의 착오와 기존에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은 것도 수십 군데 이상 되고 자료의 미비함을 보충한 것⁸⁵⁾도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5) 각종 史籍 외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관련기록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료 내용을 방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空桐, 崑崙, 서왕모에 관한 중국 전설과 중국에 관한 페르시아의 전설 및 인도의 우화와 신화 등을 통해 고대 증서관계를 추정하고(1편 2, 3장), 詩詞를 통해 한 무제의 求仙사상, 唐代 長安의 胡風과 揚州의 변화함 등을 엿보고 있으며(1편 8장, 2편 5, 7, 8장), 필기와 희곡 등을 통해 역대 중국 무슬림의 활약과 그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3편 4, 9, 11장), 소설 『홍루몽』을 통해 청대 민간에서 시계를 비롯한 서양문물이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4편 3, 5, 9장).

이러한 특장은 저자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동반됨으로써 여러 서방자료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 작가의 중국 서술, 원·명대 유럽인의 중국 기술, 불어 등으로 번역된 아랍인의 중국에 관한 기록 뿐 아니라 명말청초 서양선교사들이 남긴 手稿와 편지 및 서양학자의 선행연구 등을 자유자재로 운용하여 중국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

84) 예컨대 중국의 역대 정사와 실록, 총서, 碑文, 지방지, 개인저작, 알레니의 『大西西泰利先生行蹟』 및 일본자료, 그리고 아랍여행가 Hassan의 기록, Abulfeda의 중국에 관한 기록, 『이븐바투타 여행기』, Pinto의 *Peregrinação*, d'Elia의 *Fonti Ricciane* 등 서방자료.

85) 예컨대 「人身圖五臟腑經絡圖形目錄」에 빠진 항목을 본문에 의거해 보충하고 있다(805-806쪽).

이고 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기존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⁸⁶⁾ 그 외에도 서양 언어학과 중국 聲韻學의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사료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명과 지명을 考訂하거나 同名異譯을 고증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상 살펴 본대로 『중서교통사』는 이전의 관련 저작에 비해 많은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전혀 없지도 않다. 혹자는 본서의 부족한 점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불교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제4편의 ‘들어가는 말’이 너무 간략해서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며, 참고문헌 목록이 없어 후학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⁸⁷⁾ 하지만 저자가 신부이고 그의 역사연구가 지역 교회역사에 대한 흥미에서 출발하여 20년 가까이 명말청초 중서문화교류 문제를 지속적으로 천착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무렵 중국(지식)인의 관심이 중국과 서양의 관계에 집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교와의 분량 비교는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그 외의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대학교재 부족으로 서둘러 출판해야 했던 사정과 당시의 저술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본서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한계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본문과 인용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각주 처리 없이 본문 중에 자료출처와 저자의 부연설명 등이 함께 기술되어있을 뿐 아니라 출처 표시형식도 일정하지 않고 상세하지 않으며⁸⁸⁾ 대륙 공산정권 하에 남은 학자들⁸⁹⁾의 실명을 감춤으로써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다만 본서

86) 예컨대 『중서교통사료회편』에 수록된 『에리트레아해 항해지』 번역 중 오류 2곳,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 번역 중 오류 1곳 등.

87) 彭順生, 앞의 글, 84쪽.

88) “서양문헌을 통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있다.

출판 전후 다른 중국 학술논저의 집필형식이 대부분 그러하였고,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대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또 중복된 서술(인용)이 많다는⁹⁰⁾ 점으로 본서가 이미 발표된 저자의 논문을 묶어서 펴낸 책임을 참작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 밖에 자료 全文을 인용한 것들이 있는데, 저자가 새로 발굴한 자료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소개된 『도해고적』과 『身見錄』⁹¹⁾을 여러 쪽에 걸쳐 轉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 『진국책』, 『晉書』, 『梁書』, 『낙양가람기』, 『설문해자』, 『隋書』, 『新唐書』, 王績의 「過酒家」, 『책부원구』, 『鑑戒錄』, 『烏夷志略』, 『서사기』, 『祕書監志』, 『自鳴鐘表圖說』, 梅文鼎의 「寄懷青州薛儀甫先生」, 『東西洋考』 등에서 인용한 자구나 구절 및 끊어 읽기가 원문과 다른 부분이 보인다. 또 班固를 班超의 동생으로, 北魏를 北齊로, 魏나라 襄王을 安釐王으로, 당 고종을 태종으로, 원 헌종을 세조로, 太保를 太司로, 페르시아 왕 Kai Kāvus를 Kai Kobad로, 파르티아를 페르시아로, 兩廣총독을 광동총독으로 잘못 기술한 것 등 사실(관계) 착오도 꽤 나온다는 점이다. 그 외 인용오류로 인해 설명이 잘못되거나⁹²⁾ 단위표기 잘못으로 보이는 내용⁹³⁾도 있고 인용한 원전 내용과 숫자가 맞지 않거나⁹⁴⁾ 같은 이름이 중복해서 나

89) 예컨대 陳垣, 尙達, 張星烺, 陳寅恪, 鄭鶴聲, 岑仲勉, 吳晗, 翁文灝, 閻宗臨, 白壽彝 등.
90) 예컨대 ‘蜀의 베와 邛의 竹杖, 大秦 의사가 뇌를 절개해 벌레를 꺼내는 얘기, 광주의 회교도 蒲氏, 『中醫示例』 표절 문제, 과세코의 『使華記實』 등.
91) 로마 바티칸도서관에 소장된 『신견록』은 閻宗臨이 1941년 「身見錄校注」를 『掃蕩報』 『文史地』 副刊, 52-53기에 발표함으로써 그 全文이 알려지게 되었다.
92) 예컨대 『西京雜記』에 60일 비단 1필을 만든다고 되어있는 것을 6일로 잘못 인용함으로써 전국 1년 생산량을 과다 추산하고 있다(121쪽).
93) 예컨대 수백 필의 말을 심는 2, 3층으로 된 베의 높이가 7尺(약 210cm)이라고 한 것과 필사본 『華夷譯語』의 크기가 세로 25.7吋(인치) 가로 17.2吋이라고 한 것 등이다(491, 962쪽).
94) 저자는 「남사」 「이백전」에 나열된 남해제국이 15개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남제국 6개, 서남이 16개로 총 22개이다. 또 명초 陳誠의 서역 출사 때 경유한 국가 16개를 열거하고

오고 인원이 초과하기도⁹⁵⁾ 한다.

(3) 육필 원고를 식자 인쇄하던 당시의 출판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슷한 글자의 誤植⁹⁶⁾과 脫字⁹⁷⁾은 면하기 어려웠겠지만 오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꽤 많다는 점이다.⁹⁸⁾ 또한 『漢書西域傳補注』를 『西域傳補註』, 『居貞草堂漢晉石影』를 『居貞草堂石影』, 『至正四明續志』를 『四明續志』, 『金華黃先生文集』을 『金華文集』, 『重修福建臺灣府志』를 『重修臺灣府志』, 『竹庵庵傳抄書目』를 『竹庵庵書目』, 『觀古堂書目叢刻』을 『觀古堂彙刻』으로 서명을 줄여서 적거나 잘못 표기한 것⁹⁹⁾이 다수 나올 뿐 아니

있는데, 『명사』에 따르면 총 17개국을 거쳤으며 저자가 열거한 것 중 마합마(馬哈麻)는 없고 별실팔리(別失八里)와 양이(養夷) 2개가 더 포함되어있다(195-196, 602쪽).

- 95) 분류별로 소개한 원대 중국에 온 서역인 인명 중 같은 이름이 중복해서 나오고 출신 부족별 표의 통계 숫자도 1명 초과하고 있다(596-598쪽).
- 96) 光을 先, 材를 村, 博을 作, 木을 木 土를 土, 燧를 隨, 什을 千, 舊를 舊, 澗을 深, 湯을 陽, 甌을 甌, 榮을 藥, 井을 非, 撤을 撤, 毳을 毳, 牙를 方, 夫를 失, 弦을 絃, 椰를 榔, 里를 黑, 兀을 元, 和를 如, 圖를 回, 愛를 受, 履를 屨로 잘못 적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97) 인명의 경우 闕賦伽가 賦伽 辛押陀羅가 押陀羅으로, 인용구의 경우 膜拜受詔書가 ‘拜受詔書’로, 서명의 경우 『후한서』가 『한서』, 『後漢紀』가 『漢紀』, 『重論文齋筆錄』이 『重論齋筆錄』, 『璣衡撫辰儀記』가 『璣衡撫辰記』, 『若水齋古今算學書錄』이 『若水齋古今算學錄』, 『列音韻譜』가 『列音韻』으로, 기타 魚龍爛漫이 瀾漫, 萬國圖가 萬國으로 되어있다.
- 98) 인명의 경우 竺留陁가 竺留弛, 釋婆羅郡隣陁가 釋婆羅郡隣陀, 曇謨最가 曇無最, 麻塔合立이 麻塔合正, 沈德符가 沈德潛, 錢熙祚가 錢錫祚, 弗錫章이 黃錫章, 嘉樂이 嘉祿, 吳友如가 吳友三으로, 국명의 경우 呵羅單國이 阿羅單國으로, 지명의 경우 走馬溪가 追馬溪, 太倉이 泰倉으로, 서명의 경우 『嶺表錄異』가 『嶺表餘異』, 『島夷志略校注』가 『島夷志略廣註』, 『清源續志』가 『清源郡志』, 『授時曆草』가 『授時算草』, 『醫林集腋』이 『醫林樂腋』, 『誅邪顯著錄』이 『誅邪顯著錄』으로, 詩題의 경우 『醉後贈王歷陽』이 『醉後贈朱歷陽』으로, 기타 ‘一品絃調’가 ‘鹿身吊肚’가 ‘鹿身牛肚’로 되어있다.
- 99) 『魏書』를 『北魏書』, 『한서』를 『후한서』, 『三國藝文志』를 『補三國藝文志』, 『東洋天文學史研究』를 『東洋天文學史大綱』, 『蒙古史料校注四種』을 『蒙古史料校注本』, 『秋澗先生全集』을 『秋澗大全集』, 『暖紅室匯刻傳奇』를 『暖紅室傳奇彙刻』, 『乘除通變本末』을 『乘除通變算實』, 『明太祖實錄』을 『明祖實錄』, 『康熙餘慶縣志』를 『康熙貴州餘慶縣志』으로 적은 것은 분명한 오류이고, 『事實類苑』을 『皇宋類苑』, 『新門散記』를 『新門雜記』로 적은 것은 저자의 기억

라 편저자를 잘못 기록한 것¹⁰⁰)과 첨부한다는 그림이 인쇄되지 않은 경우¹⁰¹)도 있다. 그 외 편명과 그 권수를 잘못 적은 것도 있으며 소개한 사료 목록 중 빠지거나 잘못 옮긴 것도 발견된다. 그리고 연도와 연호를 잘못 표기하거나 연호와 서기연도 환산이 틀린 것이 적지 않고 연수 계산착오, 생물연도와 출판연도 및 재위연도 오류, 출생년과 즉위년 혼동 등도 종종 보이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4) 외국어 고유명사와 용어에 대한 원명표기가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서에는 수많은 외국 인명, 지명, 서명, 용어가 나오는데, 저자가 다른 중국 논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원명을 병기하고는 있지만, 전혀 병기하지 않은 것도 많고 앞뒤 표기가 다르거나 잘못된 것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런 미비점은 저자가 인용 참고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며 원명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공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V. 맺음말

정식 역사 전문교육을 전혀 받은 바 없이 사계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출판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분야의 명저로 평가받는 저술을 완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중서교통사』의 저자 방호가 이런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학력과 학벌 대신 실력을 중시했던 당시 중국 대학과 학계의 분위

작으로 보인다.

100) 『法苑珠林』의 저자 道世를 道宣으로, 『大唐甲子元辰曆』의 저자 瞿曇謙을 瞿曇譙으로, 『輿地紀勝』의 편자 王象之를 王象으로 적고 있다(149, 332, 495쪽).

101) 關立本の 작품 「秦府十八學士圖」와 「貞觀中凌煙閣功臣圖」(383쪽).

기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가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천주교 사제로서 언론사 주편(관장),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맡은 바 직책과 본분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학회와 연구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바쁜 일상 중에도 다방면에 걸친 수많은 학술논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경이로운 삶을 살았다.

『중서교통사』는 선사시대부터 청대 중엽에 이르는 중서교류의 역사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 책으로 그 구성과 인용자료 및 고증과 관점에 있어 이에 필적할 만한 연구를 아직 찾기 어렵다. 중국과 서양의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된 명말 이전은 시대 순으로 서방과의 관계를 서술한 반면, 명말 이후 서양선교사를 매개로 전개된 중서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분과학문별로 상세히 다루는 과격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발굴 문물과 고대 전설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와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증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아시아 각국의 자료도 활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중서관계의 현상을 파악하고 간접적이고 작은 관계에 주목한 점 등은 기존 연구에서 보기 드문 시도였다고 하겠다.

본서는 사료발굴과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개별연구를 통해 중서교통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학계의 오랜 쟁점을 해결하고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많은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저자의 탄탄한 중국학 기초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 및 치밀한 고증은 물론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저자가 명말청초 중서문화교류 연구에 치중했던 이유는 그의 성장과정과 신부라는 환경적 요소 외에, 상호 평등과 존중의 정신으로 문화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공존과 융합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아편전쟁 이래 중서 간의 불평등과 침탈을 체험한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자의 이런 인식은 시대를 앞선 학문적 자세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여러 장점을 가진 책이지만 당시의 저술관행으로 인한 체제상의 한계로 가독성이 떨어지며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인쇄를 서둘면서 생긴 오탈자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외 저자의 실수나 착오로 보이는 내용과 일관(통일)성 결여 등의 미비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저자 역시 이러한 결점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불만스러워했지만¹⁰²⁾ 끝내 수정 보완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아쉬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은 그 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새로운 연구시각과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중서교통사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지위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방호, 『중서교통사』, 문화교류, 공존, 융합, 접경

(논문투고: 2020.05.28 / 논문심사완료: 2020.06.18 / 논문게재 확정일: 2020.06.19)

102) 이동화, 「연보고」, 328쪽.

참고문헌

<단행본>

- 方豪, 『中西交通史』,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 方豪, 『中外文化交通史論叢』第一輯, 重慶, 獨立出版社, 1944.
- 閻宗臨, 『中西交通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 李東華, 『方豪先生年譜』, 臺北, 國史館, 1990.
- 李東華, 『一位自學史家的成長: 方豪的生平與治學』,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17.

<논문>

- 신익철, 「중서교류사 탐구의 성과와 연행록 연구의 접점」, 『정신문화연구』 34-4, 2011.
- 山口正之, 「清朝在支歐人と朝鮮使臣」, 『史學雜誌』44-7, 1933.
- 柯思慧, 「從馬相伯到方豪: 中國知識分子天主教士的思想衝激與教育·傳教事業」, 中國文化大學 碩士論文, 2010.
- 關玲玲, 「方豪與陳垣之‘私淑’情誼: 一位自學史家成長的關鍵歷程」, 『東吳歷史學報』19, 2008.
- 盧胡彬, 「方豪對臺灣方志的研究」, 『白沙人文社會學報』1, 2002.
- 李東華, 「方杰人(豪)先生年譜稿」, 『國立臺灣大學文史哲學報』34, 1985.
- 李東華, 「方豪教授與香港學界的交往及其影響(1950-80)」, 『臺大文史哲學報』62, 2005.
- 李東華, 「方豪神父與民國天主教會」, 『臺大歷史學報』33, 2004.
- 李東華, 「方豪與現代中國史學研究的轉變」, 『臺大歷史學報』21, 1997.
- 李東華, 「從方杰人師的學術生涯看其對中西交通史之研究」, 『輔仁歷史學報』26, 2011.

- 李天星, 「試論戰後方豪的臺灣史研究」, 『臺灣研究集刊』2017-1.
- 隋丕寧, 「論方豪對臺灣史的研究」, 『錦州師範學院學報』2003-7.
- 修彩波, 「近代學人與中西交通史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4.
- 修彩波, 「讀方豪的『中國天主教史人物傳』」, 『華夏文化』2003-3.
- 修彩波, 「方豪史學成就述評」, 『歷史教學問題』2002-6.
- 修彩波, 「方豪與中西交通史研究」, 『史學理論研究』2003-3.
- 修彩波, 「方豪的天主教史研究: 以『中國天主教史人物傳』爲例」, 『萊陽農學院學報』2003-1.
- 修彩波, 「試論方豪的宗教史研究」, 『貴州文史叢刊』2003-1.
- 章文欽, 「方豪教授與吳漁山研究」, 『輔仁歷史學報』28, 2012.
- 張曉磊, 「方豪紅學研究」, 中國藝術研究院 碩士論文, 2010.
- 張曉磊, 「方豪紅學研究綜述」, 『紅樓夢學刊』2010-2.
- 彭順生, 「中外關係史的一部力作: 評方豪的『中西交通史』」, 『湘潭師範學院學報』1996-5.
- 洪健榮, 「開啓典範的先驅: 方豪對清代臺灣方志的研究」, 『輔仁歷史學報』26, 2011.
- 黃大受, 「『中西交通史』第四·五冊」, 『自由中國』12-5, 1955.

Reference

<Books>

- Fang Hao, *Zhongxi jiaotong shi*, Taipei, Hwakang Publishing Center, 1983.
- Fang Hao, *Discussion on the History of Sino-Foreign Culture exchange No.1*, Chongqing, Independence Press, 1944.
- Yan Zonglin, *Zhongxi jiaotong shi*, Guilin,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Group, 2007.
- Lee Tonghwa, *The Chronicle of Mr. Fang Hao*, Taipei, Academia Historica, 1990.
- Lee Tonghwa, *A Self-educated Historian: Fang Hao's Life and His Research Overview*, Taipei,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ess, 2017.

<Articles>

- Shin Ikcheol, “The Result of Exploring the History of Sino-Western intercourse and the Touch point of Yeonhaengrok(燕行錄)s Research”,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34-4, 2011.
- Yamaguchi Masayuki, “The European Who lived at China in Qing Dynasty and Korean Envoys”, *Shigaku-Zasshi* 44-7, 1933.
- Ke Sihui, “From Ma Xiangbo to Fang Hao: Impulse of Thought and Education Missionary Undertaking of Chinese Intellectuals Catholic Missionaries”, Chinese Culture University, Master Thesis, 2010.
- Kuan Lingling, “Learning Informally From Chen Yuan: The Key

- Process in Fang Hao's Self-Educating Efforts to be a Historian", *Dongwu Historical Journal* 19, 2008.
- Lu Hupin, "Fang Hou's Study on Local gazetteers of Taiwan", *Journal of Pais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 2002.
- Lee Tonghwa, "The Chronicle of Mr. Fang Jieren(Hao)", *Humanitas Taiwanica* 34, 1985.
- Lee Tonghwa, "The Scholastic Communications Between Prof. Maurus Fang Hao and Hong Kong Scholars from 1950 to 80", *Humanitas Taiwanica* 62, 2005.
- Lee Tonghwa, "Fr. Maurus Fang Hao and the Catholic Church in Republican China", *Historical Inquiry* 33, 2004.
- Lee Tonghwa, "Professor Maraus Fang and the Transformation of Historical Studies in Modern China", *Historical Inquiry* 21, 1997.
- Lee Tonghwa, "Looking at Fang Jieren's Research on the History of Sino-Western exchange from an Academic Career", *Fujen Historical Journal* 26, 2011
- Li Tianxing, "On Taiwan History Studied by Fang Hao after 1949", *Taiwan Research Journal* 2017-1.
- Sui Pining, "Fang Hao's Research about Taiwan History", *Journal of Jinzhou Normal College* 2003-7.
- Xiu Caibo, "Modern Scholars' Research on the History of Sino-Western exchange",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4.
- Xiu Caibo, "Reading Fang Hao's *Biography of Chinese Catholic History*", *Chinese Culture* 2003-3.
- Xiu Caibo, "Comments on Fang Hao's Historical Achievements", *History Research and Teaching* 2002-6.

- Xiu Caibo, “Fang Hao and Research of the History of Sino-Western exchange, *Historiography Quarterly* 2003-3.
- Xiu Caibo, “Fang Hao’s Contribution to the Historical Study of Catholic —on the *Biography of Chinese Catholic History*”, *Journal of Laiyang Agricultural College* 2003-1.
- Xiu Caibo, “Discuss on Fang Hao’s Research on History of Religious”, *Guizhou Wen Shi Cong Kan* 2003-1.
- Zhang Wenqin, “Professor Fang Hao and the Study of Wu Yushan”, *Fujian Historical Journal* 28, 2012.
- Zhang Xiaolei, “Fang Hao’s Research of Redology”, Chinese National Academy of Art, Master Thesis, 2010.
- Zhang Xiaolei, “A Summary of the Fang Hao’s Research of Redology”, *A Dream of Red Mansions* 2010-2.
- Peng Shunsheng, “A Powerful Work of the History of Sino-Foreign Relations: Evaluating Fang Hao’s *Zhongxi jiaotong shi*”, *Journal of Xiangtan Normal University* 1996-5.
- Hung Chienjung, “The Pioneer of the ‘Paradigm’: Fang Hao’s Research to the Gazetteers of Taiwan during the Qing Dynasty”, *Fujian Historical Journal* 26, 2011.
- Huang Dashou, “*Zhongxi jiaotong shi* No.4·No.5”, *Free China* 12-5, 1955.

Fang Hao(方豪) and *Zhongxi jiaotong shi*(中西交通史)

- Its Meanings and Limitations in History
of Historiography -

Son, Jun-sik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modern Chinese historian Fang Hao(1910-1980) and the meanings of *Zhongxi jiaotong shi*, one of his representative achievements, in history of historiography including its composition, material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t is thought that the author, who had never had any formal professional education of history, was able to write a masterpiece of this field not only due to the atmosphere of Chinese universities and academia of the time which emphasized competence rather than educational background, but also with his own effort and will as the greatest driving force. The author lived an extraordinary life by consistently publishing numerous wide-ranging academic writings during his busy daily life of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conferences and research institute activities, while fulfilling his duties as a Catholic priest, a director of a press, and a professor as well.

Zhongxi jiaotong shi is a book that almost completely summarizes the history of Sino-Western exchange from the prehistoric era to the mid-Qing Dynasty, and it's difficult to find a research comparable to this in terms of composition, cited materials,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perspective. While it describes the relations with the West in a chronological order until the late-Ming dynasty, which is when the contact between China and the West began in earnest, it takes an exceptional approach regarding the Sino-Western cultural exchange mainly developed by Western missionaries after the late-Ming dynasty, by dealing in detail according to each academic discipline. In addition, the trustworthiness of historical investigation is increas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and preceding studies including excavated artifacts and ancient legends, and in some cases it shows flexibility of using materials from 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not in the research range. Moreover, comprehending the phenomenon of Sino-Western exchange from the world-history perspective and focusing on indirect and trivial relations were rare attempts compared to preceding researches.

This book not only has expanded the horizon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Sino-Western exchange through finding out historical sources and individual researches unnoticed by others, but is also characterized by solving long-standing issues of academia and correcting errors of related materials and preceding researches which led to a lot of new interpretations. This has been made possible due to the author's solid basis of Chinese studies, excellent foreign language skills, detailed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his own unique view of the history. The author focused on studying the Sino-Western cultural exchanges during the late-Ming and the early-Qing period because, other tha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his growing up and being a priest, he considered the continuation of cultural exchanges with the spirit of mutual equality and respect as the most ideal direction for human society's coexistence and convergence.

As a member of the generation that had experienced inequalities and invasions between China and the West since the Opium War, this perception of the author is thought to be an academic attitude ahead of the times.

Although this book has a lot of strengths shown above, it has problems such as poor readability due to the systematic limitation of writing practices of the time, and the misprints caused by rushing printing to use it as a textbook. Quite a few imperfections such as contents that seem to be the author's mistake or misunderstanding and the lack of consistency(unity) are found additionally. As the author was also aware of these shortcomings and was very dissatisfied by them, it's a shame he did not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orrections and supplementations to the end. Nevertheless,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s judged to have historiographic status and meanings in that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researches of a history of Sino-Western exchanges and raised the level one step further by integrating previous research outcomes and pioneering new research perspective and area.

Key Words : Fang Hao, *Zhongxi jiaotong shi*, cultural exchange, coexistence, convergence, contact zone